

2/19/17

설교 제목: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발람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민수기 22:1-35

- (민 22:1)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 (민 22:2)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 (민 22:3)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 (민 22:4)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 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던라
- (민 22:5) 그가 사신을 브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 가 브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절관주** 신 23:4
- (민 22:6)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압이니라
- (민 22:7)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절관주** 출 23:8, 잠 17:23
- (민 22:8)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 (민 22:9)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 (민 22:10)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 (민 22:11)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 (민 22:12)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 (민 22:13)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 (민 22:14)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람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 (민 22:15) 발람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 (민 22:16)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람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 (민 22:17)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 (민 22:18)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람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 (민 22:19)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 (민 22:20)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 (민 22:21)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 (민 22:22)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시므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 (민 22:23)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발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절관주** 왕하 6:17, 단 10:7
- (민 22:24)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 (민 22:25)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 (민 22:26)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절관주** 호 2:6
- (민 22:27)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 (민 22:28)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절관주** 눅 19:40

- (민 22:29)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절관주** 전 9:3, 렘 17:9
- (민 22:30)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절관주** 고전 1:27
- (민 22:31) 그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 (민 22:32)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 (민 22:33)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 (민 22:34)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서 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 (민 22:35)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본문에 들어가기 전 먼저 이 사건이 일어난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BC 1446 년) 이후 40 년쯤 되었을 때에 생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우여곡절을 겪은 후 이제 겨우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가나안이 바라보이는 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동쪽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 모압 땅에 진을 쳤습니다.

드디어 요단강만 건너면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우호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 모압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주변 나라들이 그러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보자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온 변변한 무기하나 가지지 못한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을 비롯한 이방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승승장구를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60 만 장정을 포함해 200 만명이 넘는 대부대였습니다.

당연히 주변 나라들이 촉각을 곤두세울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에 등을 돌릴지라도 모압이 그러면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없는 롯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에서부터 철없는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와 끝까지 끌어 안고 가면서 아들같이 여기고 사랑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적개심을 품고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역부족임을 알고 왕 발락이 나서 당대 유명한 선지자???였던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 줄 것을 청합니다.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이 다음과 같이 말할 정도로 당대 유명한 선지자??? 였습니다.

(민 22:4)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 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던대라

(민 22:5) 그가 사신을 브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 가 브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민 22:6)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압이니라

이정도라도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본문을 보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1 절 발람이 나귀를 타고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모압으로 향합니다.

(민 22:21)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발람이 모압을 가게된 연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 22:7)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람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민 22:8)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민 22:9)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민 22:10)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민 22:11)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민 22:12)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나머지 발람에게 사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발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가기를 거절합니다.

발람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모압 왕 발락은 포기하지 않고 앞서 보냈던 귀족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어 발람에게 모압에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발람을 크고 존귀하게 만들어 줄 것이고 그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 주겠다고 회유도 합니다.

그러자 발람은 발락의 신하들에게 하나님께 다시 여쭙어 보겠다고 합니다.

(민 22:18)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민 22:19)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민 22:20)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서는 발람의 두 번째 질문에 모압의 사신들과 함께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는 함께 가라고 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신 것일까요?

이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우리가 바른 신앙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속 깊은 곳까지 감찰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발람의 마음 속 깊은 곳까지도 훤히 꿰뚫어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이 처음 물었을 때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사신이 왔을 때도 그냥 그들을 돌려보내면 되는데 발람은 하나님께 다시 묻겠다고 합니다.

왜 발람이 이같이 하나님께 다시 물어 보겠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발람의 마음 속 깊은 곳에 그들을 따라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발람은 재물과 세상 영광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발람이 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고자 했었다면 하나님께 같은 질문을 또 다시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같은 질문을 두 번이나 했다는 것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그대로 순종하기 싫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발람의 마음을 모르실리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같은 질문을 두 번씩이나 묻는 발람에게 첫 번째와는 다르게 '함께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뜻을 번복하신 것으로 잘못 해석하면 안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모압 왕 발락의 유혹에 빠진 발람에게 그의 죄를 드러내 깨우쳐 주기 위해 그가 모압에 가는 것을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발람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귀를 이용하십니다.

발람이 나귀를 타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모압으로 가는데 갑자기 나귀가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발람은 화가 나서 나귀에게 채찍을 가합니다.

그러나 나귀는 칼든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어찌지 못하고 오히려 몸을 담에 바짝 대었고 그로 인해 발람의 발이 그 담에 짓눌러지게 됩니다.

칼든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는 고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발람은 나귀에게 다시 채찍질을 가합니다.

나귀는 어찌지 못하고 발람 밑에 엎드립니다.

아직도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하는 발람은 이런 나귀에게 노를 발하고 지팡이로 때립니다.

그러자 갑자기 나귀가 발람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민 22:30)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나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하나님이 짐승인 나귀도 보는 하나님의 사자 곧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런 답답한 행동을 하는 발람을 얼마나 한심하게 여기셨으면 짐승인 나귀의 입을 다 여셨겠습니까?

드디어 하나님은 발람의 눈도 밝혀 주셔서 길 한 가운데 칼을 빼들고 서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발람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이 모압으로 가라고 허락해서 가는 것이라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킬지 모르지만 그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실제로 발람의 마음 속 깊은 곳에는 모압으로 가고 싶은 충동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솔직히 종종 이런 마음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는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을 하기 위한 것이기라기 보다는 우리 자신이 원하는 좋은 쪽으로 응답을 유도하기 위한 것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쭙고 그분의 뜻에 따른다고 변명하거나 정당화시키면 안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내 뜻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만 합니다.

비록 당장의 생각에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이익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돌이켜 보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 22:24) 여호와와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민 22:25) 나귀가 여호와와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민 22:26) 여호와와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좌우에는 담이 있고 앞에는 하나님이 가로막고 있어 우리가 아무리 용을 써 보아도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칠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우리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뜻대로 살아
보려고 머리 싸매고 발버둥 치지만 우리네 인생은 결국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드디어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십니다.

그러자 비로소 발람의 눈에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여호와와 사자가 곧 하나님이 보이게 됩니다.

발람은 그제서야 자신이 여호와를 거역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민 22:34) 발람이 여호와와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사람이 자신의 뜻대로 안되는 인생을 원망하면서 사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문득 우리의 눈이 뜨여서 우리의 인생 앞에 우뚝 서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움직이며 살았다고 생각했던 내 인생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었는지를 고백하며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민 22:33)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본문은 나귀가 발람의 뜻대로 움직였다면 발람은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 뜻대로 움직였다면 우리 인생은 끝까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결국 멸망으로 끝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분께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